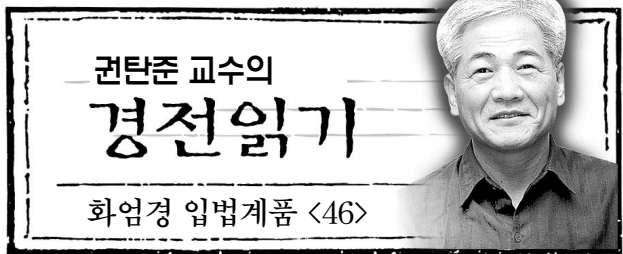


지금까지 선재동자가 찾아갔던 여러 선지식들은 인간세계의 선지식들이었다. 이들을 방문하고 나서 다시 선(仙)이나 하늘 세계의 선지식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 사이에 나타나는 선지식이 관자재보살과 정취(正趣)보살이다.

선재동자는 다시 남쪽의 보탈락가(Potalaka)산에 있는 관자재(觀自在)보살을 찾아간다. 그 산에 이르러 이곳저곳으로 이 보살을 찾아다니다가 문득 바라보니 서쪽 끝까지 시냇물이 굽이쳐 흐르고 수목이 우거져 있으며 부드럽고 향기로운 풀이 깔려 있었다. 관자재보살이 금강보좌 위에 가부좌하고 있고, 한량없는 보살들에게 둘러싸이어서 그들에게 대자대비한 법을 설하여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도록 하고 있었다.

선재동자가 관자재보살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니, 관자재보살은 선재동자를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가 대승의 마음을 내어 중생들을 널리 거두어주고 정직한 마음으로 불법을 구하는 것을 칭찬하였다. 선재동자가 예배드리고 나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뒤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자, 관자재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해탈문을 성취하였다. 나는 이 보살의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문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교화하여 끊이지 아니한다. 나는 이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문에 머물렀으므로 모든 여래의 처소에 항상 있으며 모든 중생의 앞에 항상 나타나서 보시, 사랑하는 말, 이롭게 하는 행, 같이 일함 등으로써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한다. 육신을 나누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갖가지 부사의한 빛과 깨끗한



권단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46>

관자재보살의 법문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교화”

대비심은 부처님과 중생 연결고리

광명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며, 음성으로써 하기도 하고 위(威嚴)로써 하기도 하며, 법을 말하기도 하고 신통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며,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성숙케 하기도 하고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함께 있으면서 성숙케 하기도 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문을 수행하여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 하노니 모든 중생이 험난한 길에서 공포를 여의며 번뇌의 공포, 미혹한 공포, 속박된 공포, 살해될 공포, 빈궁할 공포, 생할하지 못할 공포, 나쁜 이름을 얻을 공포, 죽을 공포, 여러 사람 앞에서의 공포, 나쁜 길에 태어날 공포, 캄캄한 속에서의 공포, 옮겨 다닐 공포,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공포, 원수를 만나는 공포, 몸을 핍박하는 공포,

마음을 핍박하는 공포, 근심 걱정의 공포 등을 여의기를 원한다. 또한 나는 여러 중생이 나를 생각하거나 나의 이름을 일컫거나 나의 몸을 보거나 하면, 다 모든 공포가 면해지기를 원한다.

나는 이런 방편으로써 중생들을 다시 가르쳐 아늑다라삼삼박보리심을 내고 영원히 물러가지 않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문을 얻었을 뿐이다.”

관자재보살이 설하고 있는 ‘크게 가엾이 여기는 행의 해탈문(大悲行解脱門)’은 세간 속에 머무르면서 평등하게 일체중생을 수순(隨順)하며 자비행을 성취하는 것이다.

관자재보살이 이 해탈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여래가 계신 곳에 있

면서 모든 중생의 앞에 언제나 나타나 그들을 거두어준다고 하는 것은 여래의 마음은 대비심이기 때문에 보살이 대비심을 가지면 여래와 함께 있는 것이며, 이 대비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빠진 중생의 앞에 항상 나타나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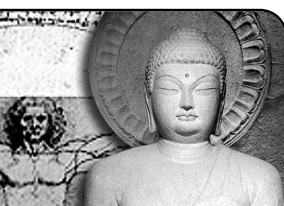
관자재보살은 일체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몸을 변화해서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동류(同類)의 몸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일체중생을 거두어주려는 커다란 서원(誓願)을 일으켜서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한다.

인생의 행로(行路)는 참으로 험난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공포( 두려움)가 중생들을 편안치 못하게 하고 괴롭힌다.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생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관자재보살은 우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구호하려고 하여 심지어는 어떠한 중생이든지 그를 생각하거나 그의 이름을 일컫거나 그의 몸을 보거나 하면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관자재보살은 이렇게 여러가지 방편으로써 중생들의 공포를 여의게 하고 나서서, 다시 그들에게 불법을 가르쳐서 보리심을 내어 영원히 되돌리지 않도록 한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는 것이고, 중생과 부처님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대비심이다. 대비심이야말로 중생세계 속에 부처님을 출현시키는 거룩한 생명이야.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우회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22>



암(癌)의 불교적 모습

의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암(癌)의 발생은 높아진다.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면서 평균 수명은 이미 남녀 모두 80세 부근의 수치를 가리키고 있다. 과거 사람의 수명이 짧았을 때 감염 등으로 인한 사망에 비하여 암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과 환경 개선에 따른 수명 연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동시에 여러 성인병과 더불어 암의 발생이 사망률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생명체의 생존 방식이 개선되면 될수록 암의 발생을 돕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암은 이러한 생명체의 이란성생애(二卵性雙生兒)이다. 단 하나의 세포 인 수정란에서 시작된 생명체는 끊임

이(轉移)하여 전신으로 퍼져 나간다. 이것 역시 암 나름대로의 생존해 나아가는 방식이다. 암과 생명 연장을 통해 고령화로 나아가는 우리의 욕망은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공통점이란 정상세포와 암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복제를 통해 분열 증식하고(慾望), 주위와의 관계를 통해(緣起) 존재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제멋대로인 암세포도 철저히 체계적 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발현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 어느 쪽도 영적 관계 속에서 인과(因果)를 떠날 수 없지만 정상세포는 인과에 매(牽)하지 않고 깨어있어서 아름다운

모든 생명체 복제·증식 통해 존재유지

인과 무시한 욕망이 파멸의 병 불러

없이 분열하여 이십여 년 후에 수백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어른이 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세포의 생사(生死)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완성된 성체를 이루기 위해 세포와 세포, 세포와 주위 조직 간의 유기적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암은 정상 생명체의 세포 분열 기능을 그대로 활용되, 그러한 정상적 인과 관계를 무시하고 홀로 분열하고 증식하여 주위 조직이나 장기에 대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고 암 역시 주위와의 관계를 아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분열, 증식을 위해 새로운 혈관 형성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으며 주위 조직으로부터의 자극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효소를 만들어 주위 조직을 뚫고 전

조화를 이루고 있다가 오고감(生死)에 연연해하지 않고 때가 되면 조용히 소멸해 가는데 반해, 암세포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한 욕망의 노예로서 인과에 깨어있지 못하고 당장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하여 결국 생명체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지 못하여 너와 나 모두 성급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

오래 사는 것이 의학의 지상명제로 되어 고령화로 나아가는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오래 살기 위해 별의별 희한한 것을 다 먹어가며 지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개인이건 사회이건 그러한 욕망(慾望)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 되 인과마저 무시하고 추구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이나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은 결국 우리를 암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직지인심 경성성불’이라는 말로 표현된 선종의 기본 입장은 세상과 인간의 온갖 문제에 대해서 그 궁극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개인의 마음가짐에서 찾는 것이고, 이것은 동·서양 고전종교와 고전사상에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를 했다. 고전종교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온갖

세상사에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한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폭갑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해에는 농사가 잘 되고 어느 해에는 흉년이 드는데, 잘 되면 신령님 덕분이고 못되면 신령님이 원가 노해서 그러리라고 여긴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누구는 크게 애쓰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편안하게 사는데 누구는 아등바등 처절하게 발버둥을 치며 고생을 해도 되는 일 없는 것을 두고는 흔히들 팔자소관이라고 한다. ‘팔자’라는 힘이 인간사를 관장한다는 관념이다.

고전종교 이전의 현저한 종교적인 신행으로서 이른바 주술(呪術)이라는 것이 있다. 영어로 마직(magic)인데, 요즈음에는 마술(魔術)이라고 해서 눈속임 기술로써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는 오락을 뜻하지만 원래 학술용어로서는 그런 뜻이 아니



다. 세상의 일들이 돌아가는 데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전제 아래, 그 법칙을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술수를 부리는 것이 주술이다. 장희빈이 궁전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발술을 썼다가 나중에 걸려서 쫓겨났는데, 그 방

선의 세계 ①9

견성성불(見性成佛)-7

기능이 좋아진다는 믿음은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인과율적인 자연 법칙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다만, 그 주술적인 인과율은 과학에서 밝혀내는 인과율적 자연법칙과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고전종교에서는 그러한 초월적, 초자연적인 궁극의 원리를 나 자신이 깨닫고 체현(體現)하는 것을 중시한다. 또는 조물주에 대해서 피조물로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고전종교가 등장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모든 세상사가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달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원시종교적인 신행과 주술적인 사고방식은 여전히 행행하고 있다. 더욱이, 근대 이후에는 개개인의 각성보다는 사회의 틀이라든가 제도를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뿐 아니라 개인의 문제 해결에도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이 매우 강하게 대두하였다. 그런 사상이 현대문명을 주도하는 한 축이 되면서 고전종교의 이상은 많이 위축되었으나, 한편으로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 고전적인 이상의 중요한 가치는 퇴색하지 않고 있다.

■윤원철 서울대학교 교수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

술이라는 것이 전형적인 주술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 그것을 바늘로 찌르면 그 사람이 아프거나 하는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가뭄에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풍으로 키질을 하여 빗소리를 내는 것도 주술의 전형적인 한 예이고, 암컷을 여럿 거느리는 뜰개 수컷의 생식기를 먹으면 성취

가 된다. 그러나 고전종교에서는 모든 세상사가 결국에는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점을 강조한다. 고전종교에서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 내지 실제로 말하는 정법(正法)이라든가 도(道), 조물주 등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다분히 초월적이고 초자



무량사 포교원 수강생 모집
불교의식 범용범패 교육원 불교대학(불자 신행교육)
불교의식(범용, 범패) 제 3기생 학인모집(선착순 50명)
본 무량사 포교원 내 불교의식 범용, 범패 교육원에서는 초중급을 막론하고 범용 또는 범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아래 스님)은 물론 현재 생활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인 또는 법사님에게서도 본 교육원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는 아무런 불원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모집기간 : 2003년 11월 25일 ~ 12월 25일까지
교육과목
● 의식부문(10개월 과정) 초급 4개월, 중급 6개월
● 강의내용 : [초급] 목탁요령사용법, 세벽도량식, 종성, 송주편, 각단예불, 사시마지 불공, 관음단, 지장단, 칠성단, 용왕단, 조왕단, 산신단, 불공 및 축원, 행선축원, 관음시식, 배송, 사미율법 및 초발심 자경문, 생축, 망축 쓰는 법 등...
[중급] 시련절차, 깨달음은, 104위신중거목, 천도, 49계 계공편, 상가업불다비편, 방생의식, 구병시식, 불상행화집인법, 공강, 상가, 차량고사, 사물(복, 태정, 평귀리 사용법)
\* 재장엄본 설치법, 경가축원본, 위패, 지의, 전 만드는 법
● 작법부문 : 천수바라, 도량계(나비춤) 사다라니, 오공양, 요감, 화의제진언바라
\* 의식, 작법, 사물속성반 : 성기 부문을 짚는 기간에 배우고자 하시는 분을 위하여 별도 지도함
● 강의시간 : 의식 초급반 (일반, 4개월),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5시
의식 초급반 (속성, 2개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의식 중급반 (일반, 6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의식 중급반 (속성, 3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작 법 (일반, 10개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
작 법 (속성, 5개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 6시
마하불교대학(신행) 초급반 1기생 모집
● 모집기간 : 2003년 11월 25일 ~ 12월 25일까지 ● 교육비 : 무료
● 첫개강일 : 2004년 1월 9일(금요일)오전 11시 ● 수강일 : 매주(금요일) 오전 11시
● 차량주차 : 대구수협공판장 내(신암동 육교부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7-14
전화 053)955-7725 휴대 011-9851-0108
원장 : 주 동주(동현) 합정

간(肝)의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담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미술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담금한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황이리에 넣고 왕겨 97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황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까지 꼬여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평생을 만들어 주면 영이 바뀐다 명단 농축액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영이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뀐다.
깨끗한 운으로 바뀐다.
계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왜인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음, 명에, 재물이 옵니다.
이무리 환기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음, 명에, 사업, 재물이 옵니다.
신비의 황금보물 명단농축액 051) 865-9933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단농축액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복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복기막인 복이 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